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총평(짜수형 기준)

-목차-

1. 2024학년도 수능 국어에서 가장 돋보이는 포인트들
2. 당해 시험에서의 주요 기조
3. 당해 시험을 통해 길러야 할 소양
4. 당해 모의고사와 수능 기조를 통해 후년을 위한 대비 전략
5. 개인적인 소감

<2024학년도 수능 국어에서 가장 돋보이는 포인트들>

우선, 가장 첫 째로 당해 수능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통된 포인트들은 아래 다섯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문장이 함의하는 뜻을 맥락과 글의 의도에 맞게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
- ② 선지 및 본문에 제시된 개념과 표현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이해 및 글의 전제 상정(글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논의 배경) 능력을 요구.
- ③ 문장 서술의 방식과 문장 구성 방식을 이해하여 정보를 효과적·능동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
- ④ 정보 제시와 정보 구성 방식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글 읽기 능력을 요구.
- ⑤ 상징과 은유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명확한 인과관계와 관계성들

이러한 포인트들은 특정 지문이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지문과 문제 그리고 선지에 적용되는 내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평가원이 원하는 요구치(학생들이 길러야 할 소양과 능력)가 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개별 시험별로 눈에 띄는 특징이나 디테일들은 매년 다를 수 있지만, 그것들은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기에 당해 수능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내년 시험 대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각 포인트별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졌는지 살펴보자.

① 문장이 함의하는 뜻을 글의 맥락과 의도에 맞게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

어떤 글에서든지 문장이 함의하고 있는 뜻을 파악하고 해당 문장이 글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능력은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독서의 시발점이자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장은 각자 역할과 기능이 존재하고 이것들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 글을 온전히 이해 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이러한 능력이 미흡하여 문장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글을 읽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당해 시험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 중 하나인 -유한준, 「잊음을 논함」-을 예로 들어보자. 이 작품은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평범한 문장으로만 구성된 것만은 아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너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잊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을 보고 적잖이 당황 했을 것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바라보면 매우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문학 작품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바라보기만 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큰 걸림돌이 있었을 것이다. 문학 작품이란 좁게는 그 문장의 뜻을, 크게는 작품의 창작 의도를 유기적으로 이해해야만 비로소 그 작품을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너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문장을 봤을 때, 우선 잊는 것은 병이라 생각하는 통념 하나와 그것을 비트는 ‘잊는 것은 병이 아니다(잊는 것이 항상 병인 것은 아니다).’라는 필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문장의 초입부터 필자는 작품의 의도를 상정하고 들어갔다. 나아가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앞과 비슷한 구조로 작품을 진행시킨다(이 문장과 앞의 문장의 연결이 부담스럽거나 어색하다면, 이홍의 입장에서 ‘그렇다면요? 잊지 않는 것은요?’라는 말을 속으로 넣어 말을 듣는 대상인 이홍과 필자의 대화로 이해해도 좋다).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논리적으로 해석해보면 ‘잊지 않는 것(비슷한 말로는 기억하는 것)은 병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잊는 것은 오히려 병이 아니고, 잊지 않는 것(기억하는 것)은 병일 수 있다는 필자의 의도를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의 구성들과 위치 그리고 역할을 잘 살필 수 있다면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라는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얻어 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앞서 복잡하게 서술된 잊음과 잊지 않음에 대한 의미이며, 둘째로는 필자의 주장이 어떤 근거를 통해 정당화 될지 시작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사실 해당 문장 이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라는 문장에서 잊지 않는 것은 병이며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차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제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유한준, 「잊음을 논함」-은 필자의 자문자답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 일련의 형식을 통해 창작 의도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런 과정 속에서 문장에 내재된 내용적·형식적 뜻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통해 글의 의도를 파악 할 수 있는 능력은 수능 국어에서 필히 요구되는 능력이라 볼 수 있겠다.

② 선지 및 본문에 제시된 개념과 표현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이해 및 글의 전제 상정(글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논의 배경)능력을 요구.

이 포인트는 독서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문학 영역에서, 특히 선지 부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요소는 과거 시험에서도 물론이고 최신 기출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확신한다. 문학 문제 선지에서 참·거짓 판단을 할 때, 선지에 쓰인 표현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을지 판단의 기준선을 정확히 잡는 작업들이 매우 거대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EBS기준 오답률 TOP 7인 34번 문항을 예로 보도록 하자. 이 문제는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보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작품 (가), (나)에 대한 적절한 감상 그리고 적절성 판단 능력이 필요한 문제다. 이는 곧 범주 판단 능력과 직결되기도 한다.

②번의 관점에 입각하여 <보기>를 살펴볼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 [생생하게 표현],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공간인 향촌], [회포], [취향], [개성적 공간], [금지] 정도가 있다. 각각의 용어들을 작품과 <보기>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의할지가 정·오 결정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해당 문제의 정답(실제로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인 ④번 선지인 [(가)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군.]을 살펴보자.

(가)라는 전제에서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는 어떤 의미이며 감정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이후,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은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만약 정말로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드러내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나)에서는 '청산에서의 삶'은 무엇인지, 어떠한 삶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넘어가야 하며, 이러한 삶을 통해 '자랑스러움'을 정말로 느끼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나아가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야인 생애'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정말로 '야인 생애'가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했다면, '겸양의 태도'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전부 거쳤다면 최종적으로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냈는지' 참·거짓을 판단하면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의 용어나 표현이라도 해석하지 못했다면 선지 정·오 판단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주어진 정보를 통해 전제를 상정하고 그 논의의 영역 안에서 참·거짓을 논할 때 단순히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것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엄연히 참과 거짓이란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배경 안에서 끊임없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것을 전제로 삼을지 혹은 어떤 배경 내에서 논의를 할 것인지는 해당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할지도 모른다. 흔히 볼 수 있는 <보기>가 제시되는 문제는 물론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때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와 ㉠과 ㉡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 또한 선지의 내용보다는 상정된 전제와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들을 견고히 다졌을 때 비로소 문제를 풀 자격이 생기는 것이니까.

③ 문장 서술의 방식과 문장 구성 방식을 이해하여 정보를 효과적·능동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

문장은 생각과 사고를 어떤 구조와 형태를 통해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렇기에 무형의 개념인 생각과 사고는 유형의 개념인 문장으로 나타내 질 수 있으며, 같은 개념을 전달하더라도 그것을 풀어내는 형태가 달라지면 그것을 이해하는 독자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가령,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라는 표현과 “정서를 상대에게 표출하고”라는 말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엄연히 다른 말이며 때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 될 수 있다.

그로인해 문장이 어떻게 서술되어있으며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통해 글의 목적과 본질을 파악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 이해해보자. [12~17]번 지문 (가) 중, “『노자』에서 ‘도(道)’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몇 가지가 있다.

첫 째. ‘도(道)’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는 표현에서 의미를 확장시키는 부분은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이다. 해당 문장 중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를 형태만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 “한비자는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다.”가 되며, 이러한 한비자의 이해는 『노자』에서 보는 도에 대한 이해와 다르지 않다 하였기에 『노자』에서 여기는 도란 만물 생성의 근원이며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된다.

둘 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에서 “이”라는 지시대명사의 활용 우리말에 효율성을 더해주는 요소 중 하나인 지시대명사에 대한 이해와, 이것의 자연스러운 처리 능력은 독해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지시 대상을 함축하는 지시대명사를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 문장에서 지시대명사 ‘이’는 “『노자』에서 ‘도(道)’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됨”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다.

셋 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에서 “다르지 않다”라는 표현의 의미 이전에 살펴보았던 -유한준, 「잇음을 논함」-에서 “잇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와 비슷한 맥락이다. 굳이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같다.’라는 직선적인 표현을 두고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표현을 채택 한 것을 생각하면, 문장 구성이나 표현을 통해 수험생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다소 보인다.

나아가 (나)지문에서도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라는 문장이 등장했으며, 이와 같은 느낌의 문장들이 선지 곳곳에 배치된 것을 보아 당해 수능 시험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학생들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상기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문장의 구성이나 문장의 표현 등의 양상에 따라 인지 과정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그렇기에 미시적으로는 해당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거시적으로는 문단과 글 내에서 어떤 구조로 문장이 연결되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④ 정보 제시와 정보 구성 방식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글 읽기 능력을 요구.

이 포인트는 단순히 정보를 어떻게 제시하고 어떻게 정보들을 구성하는지를 넘어, 이러한 것들의 구성 방식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여 체계적으로 글을 읽는 법을 다루려 한다. 글을 작성함에 있어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대중적으로 쓰임과 동시에 수능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대표적인 방식엔 두 종류가 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개념과 정의를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비하여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흔히 대비되는 개념이나 같은 범주에 있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 다른 개념이 되는 것들을 통해 정보를 제시한다. 가령, 당해 수능에 나온 [8~11]번 지문에서 결측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개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세 값 모두 결측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각각 쓰임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이라면 평균을 사용하고, 석차처럼 분절적으로 순위가 나뉘는 값이라면 중앙값을, 직업과 같이 문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또한, 결측치와 이상치를 비교·대조하여 둘의 성질을 이해 할 수 있다. 이 둘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떨어트리며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는 공통적인 범주에서 각자 다른 양상으로 작동되고 있다. 우선, 결측치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결여(缺如)되어 측정(測定)된 값이기에 0의 상태로 이해 할 수 있다. 반면, 이상치는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혹은 -의 상태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상 데이터의 종류는 적거나 없음, 많음의 상태로 이해 할 수 있다.

나아가 두 번째로 어떠한 거대한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여러 관점을 제시하고 그것들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가 가장 잘 드러난 지문은 [12~17]번 지문이다. 해당 문제에 배당된 두 지문인 (가)와 (나)는 『노자』라는 거대한 공통 주제에 대한 여러 사상가들의 해석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해 나간다. 해당 지문에서는 단순히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비하는 모습보다는 어떤 공통 범주 내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견해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서로간의 대비를 통한 관계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다소 분리된 개별 이념과 사상을 제시하여 보다 거시적으로 정보를 제시한다. 해당 지문을 통해 낸 문제들 또한 사상가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거나 각 주장들을 비교하며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그렇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주장들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근본적 논조인 『노자』에 대한 이해또한 충분해야 한다.

이처럼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비되는 정보들에 대한 이해와, 비교적 종속적이고 순차적인 관계에서 비교되는 정보 모두를 순조롭게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은 수능 국어 전반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⑤ 은유와 상징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명확한 인과관계와 관계성들

은유와 상징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란 말은 얼핏 보면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직관적인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은유와 상징이란 지문의 내용=>선지에 쓰인 표현들 간 관계에 있다. 즉, 은유(隱喩)란 말 그대로 숨길 은(隱)+깨우칠 유(喩)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 숨겨진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다. 수능 국어의 모든 선지는 지문을 전제로 만들어져 지문을 함축하고 있기에 선지에는 지문의 내용이 숨겨져 있고, 그것은 다른 말로 대치(代置)되어 있다. 가령 23번 문제와 작품 -김종길, 『문』-을 예로 들어 알아보자. 23번의 ④번 선지는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이다. 해당 선지와 관련된 작품 넷째 문단에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라는 내용이 존재한다. 당연히해도 ④번 선지는 넷째 문단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그것을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이란 방식으로 표현했다. 다음으로 해당 선지에서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란 표현으로 <보기>에 담긴 개념을 함축해 제시했다.

쉽게 말해, 선지는 지문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보기>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상징에 대한 개념탐구이다. 여기서 다루는 상징이란 당해 수능 문학에서 돋보이는 개념이었다. 대표적으로 [28~31]번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박태원, 『골목 안』-이라는 작품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일상적인 모습에서 인물들의 다양한 심리 묘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다른 기출 작품에 비해 문학적 장치나 상징물들, 혹은 작품에 내재된 문학적 내용들이 적어 보이는 반면 인물들의 시선을 바꿔가며 서술하는 작가의 치밀하고 복잡한 심리 묘사를 관찰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인물의 대사와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인물의 대화 한 마디가 작품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역할을 갖는 것 자체가 상징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러한 것들에 내재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문제 풀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명확한 인과관계와 관계성들에 대해 다루자면, 독서 지문은 물론이고 문학, 나아가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에서 등장하는 문제와 문제의 선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독서 지문의 경우 매우 다양한 것들이 촘촘한 인과 관계를 비롯한 관계성들로 연결되어 있기에 정확히 어떻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에 문제와 문제의 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문제의 발문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좀처럼 그것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잘 풀리지 않거나 자주 틀리는 문제의 유형의 경우 문제 발문 자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넓게는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의 대전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풀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주어진 ‘다음 글’에 의존하고 있는데, 주어진 지문을 무시한 채 선지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다. 독서 영역이 주로 그러한데 아무리 선지를 읽어봐도 전부 다 맞는 말 같거나, 전부 다 틀린 말 같아 보일 때가 있다. 이가 대표적으로 선지에 매몰된 경우이다. 어디까지나 주어진 ‘다음 글’을 토대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문제 스스로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지문=>문제(선지)간의 관계성을 따져야 한다.

나아가 좁게는 문제의 발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필자가 수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다. 주로 중하위권 학생이나 중위권 학생들까지도 문제의 발문을 곱씹어 생각하지 않고 냅다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만 보고, 선지로 뛰어드는 경향이 보인다. 이는 문제 풀이의 시작이자 끝을 놓치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무조건 손해 보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잘못 봤어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은 것은 덤이다). 가령,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란 문제의 발문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포인트들은 아래와 같다.

첫 째. ‘윗글’을 전제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윗글’이 어떤 글인지 알아야 한다.

둘 째.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때론 적절하지 않은 것일 수 있음)을 고르는 것이기에 이 문장에서 ‘설명’이 가지는 무게를 알아야 한다. 윗글에 대한 ‘설명’이란 **윗글을 가장 잘 나타내며 대표 할 수 있는 혹은 함축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잘 풀리지 않거나 모르는 문제들을 다시 풀 때, 이러한 요소들을 잘 점검하고 깊게 생각해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다(사실 많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집주름 영감과 양 서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란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 땐 1. 집주름 영감(양 서방)은 작품 내에서 어떤 인물인가? 2. 집주름 영감(양 서방)은 작품 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가? 3. 집주름 영감(양 서방)은 작품 내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이 세 질문에 충분한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나아가 4. 집주름 영감과 양 서방은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맞을 수밖에 없다(너무나 긴장을 하거나 심리적 상황이 좋지 못하다면 판단에 오류가 생겨 틀릴 수 있으나, 이 또한 선지를 꼼꼼히 따지며 읽으면 정답이 눈에 보인다).

더 깊게 들어가 문제에 해당하는 선지를 살펴보자. ①번 선지를 예로 들자.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아내가 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라는 선지를 봤을 때, 이를 여러 문장으로 쪼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1.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했다.(O / X)
2.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이 분별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아내가 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랐다.(O / X)
4. 아내가 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어떠한 생각을 밝혔다.(O / X)
5. 그 어떠한 생각이란 무엇인가?
6. 아내가 밝힌 어떠한 생각은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와 같다.(O / X)

이에 대한 답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면 문제를 틀리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한 선지에서 여섯 가지의 문장이 논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당해 시험은 이러한 분절적 사고 과정과 논리적 연결 과정의 분량이 많음과 동시에 매우 큰 비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논리적 구조와 관계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사고해 처리 할 수 있는 학생일수록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았으리라 믿는다.

물론 긴장과 같은 여러 심리적 이유 때문에 평소 실력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순 있으나, 이에 대한 심리적 방면에서의 마땅한 해결책은 찾기 어렵다.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통해 실전에서도 명확한 판단의 기준선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대비책이다.

<당해 시험에서의 주요 기조>

위의 포인트들을 잘 살펴보았다면, 이제 당해 시험에서의 주요 기조에 대해 논할 차례이다. 당해 시험의 가장 대표적이며 핵심적인 기조는 아래와 같다.

1. 생각보다 많은 글자 수와 그것들의 치밀한 논리성. 그리고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어휘.
2. 독서에서 설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들과 이에 대한 친절한 설명의 부재 그리고 밀도 높은 서술.
3. 직관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문학적 상징과 내재된 의미 그리고 창작 의도와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 출제.
4. 기존보다 많은 논리적 판단을 요하는 선지들과 선지 글자 수 의 증가.
5. 약간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몇몇 문제들

위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시험의 전반적인 난도를 높이고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배부 받은 뒤 마주친 독서론 조차 기존의 그것들보다 쉽다고 단언 할 수는 없다. 독서론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지 행위가 무엇이고, 또 초인지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만만하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다. 초인지란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지만, 이 표현을 보고 단번에 알아차리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이에 대한 상세 서술 또한 만만치 않다.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고는 하는데 평소에 독서를 하면서 자신의 글 읽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학생이 몇이나 있겠거니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사소한 단어인 ‘동원’조차 평소처럼 이해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독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며 점검한다. 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문장을 봤을 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은 또 무슨 뜻이며 그 전략이 효과적인 것은 또 무엇이고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생각이 들면서 막막함을 느꼈을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또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밀도 끝도 없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글을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 보는 방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 나와? 그게 뭐지? 문제가 분명하지 않은 게 뭐지?’하면서 결이 다른 정보에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차저차 글을 읽었다 치자. 그렇다 해도 머리에 들어오는 정보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일단 초인지가 뭘지 부터 까먹었을 것이고, 무슨 전략이 있었는데 밑줄은 쳐져있지 뭐가 뭘지 분류도 어렵지 하면서 상당한 어지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는 국어 실력이 좋은 학생들도 어느 정도 공감 할 내용일 것이다. 이러한 지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정보의 체계적 분류 능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1. 생각보다 많은 글자 수와 그것들의 치밀한 논리성. 그리고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어휘

대개 글자 수가 많은 시험지의 경우 비교적 밀도가 낮은 서술의 비중이 높다. 제한된 공간 내에서 글자 수가 많다는 것은 친절한 설명의 비중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글자 수도 많고 서술의 밀도가 높아 치밀하다면 출제하는 입장에서 난도 조절을 실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해 시험의 경우 글자 수도 적은 편이 아니면서 서술의 밀도가 어느 정도 높고 굉장히 치밀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에 더불어 사용된 어휘들의 수준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https://products.aspose.app/pdf/ko/word-counter> 기준(양식에 포함된 글자 수는 두 시험 모두 같으므로 포함시켜도 글자 수 비교에 영향이 없음) 2023학년도 수능의 경우 20603자, 2024학년도 수능의 경우 21343자였다. 간단히 이만 보더라도 절대적인 글자 수는 약간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에 시행된 시험과 견주어도 절대 만만한 시험이 아니었다. 서술의 밀도나 치밀함, 논리성 면에서도 작년보다 쉬웠다고 단언하기 힘든 시험이었다.

나아가 사용된 어휘의 수준 또한 생각보다 높았다. 물론, 이러한 어휘가 절대적으로 어렵거나 절대 다수가 모를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극도의 긴장이 감도는 현장에서 조금의 인지부담이라도 느끼는 순간 긴장은 가중되기 때문이다.

눈여겨 볼만한 어휘들을 잠깐 나열하자면 인지 행위, 동원, 도외시, 경합, 패권, 성패, 시비 판단, 재편, 쇠퇴, 치부, 변(變), 지모(智謀), 근원적 존재, 표출되다, 위계, 촉구, 세태를 관망, 연쇄적 제시, 겸양(謙讓), 소회(所懷) 등이 있다. 이는 독해와 문제 해결에 직결적인 단어만을 모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독해와 문제 풀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마주했을 때엔 별 무리 없이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글을 읽으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마주했다면 충분히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어의 정의를 아는 것을 넘어 이 단어가 어떤 양상으로 사용되었는지 맥락을 이해하고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2. 독서에서 설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들과 이에 대한 친절한 설명의 부재 그리고 밀도 높은 서술.

당해 모의고사나 작년도 시험보다 돋보였던 점은 지문의 밀도가 높았다는 점과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다소 불친절한 서술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선지에서 꽤나 많은 양의 논리적 판단을 요구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경마식 보도를 중심으로 다룬 [4~7]번 지문의 경우에도, 경마식 보도에 대한 정보를 다루면서 경마식 보도에 대한 정의를 서술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사실들이나 정보를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인지해야 할 정보의 양이 꽤 많다. 또한 체계적 정보 처리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후술하는 방식에 대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해당 지문은 법이나 조항, 규칙을 다루는 글이기에 어떤 사건을 두고 그것이 어떤 때에 적법하고 어떤 때에 위법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어떤 법이 존재 할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법이 생겼는지 인과관계도 따져봐야 한다. 결국 법 지문이란 것이 한 사건을 두고 그것이 무슨 이유로 적법한지, 무슨 이유로 위법한지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에 이에 대한 판단의 근거와 기준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당 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야만 지문을 깊게 이해 할 수 있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보다 많은 판단의 근거와 기준선을 요하는 지문이며 정보 서술 방식 자체의 불친절함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와 선지를 따져 봤을 때, 대표적으로 7번에서 꽤나 많은 양의 논리적 판단을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판단의 기준선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도 논리적 판단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서 사용된 논리적 사고들을 살펴보자. 이 문제에서 주로 따져 봐야 할 것은 [경합] [우세] [조금 앞섬] [오차 범위 내] [위배]와 같은 용어들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어떤 때 경합이라 할 수 있으며 우세하다고 할 수 있는지, 조금 앞서는지에 대해 기준선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여론 조사 결과를 언제 보도하는지에 따라 적법하고 위법한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직관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문학적 상징과 내재된 의미 그리고 창작 의도와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 출제.

직관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문학적 상징과 내재된 의미란 쉽게 말해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들과 연관되어있다. 작가는 작품에서 어떠한 대상(사물이나 인물, 혹은 인물간의 대화 등)을 통해 자신의 창작 의도와 생각을 전달한다. 이러한 대상과 그것을 사용한 의도가 표면위에 드러나 있을수록 작품 해석이 비교적 간편해진다. 그러나 당해 시험에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대상과 그것의 의도가 다소 숨겨져 있는 편이다. -유한준, 『잊음을 논함』-만 하더라도 '잊는 것'에 대해 다룬다는 사실만이 쉽게 파악 될 뿐 그것에 관한 작가의 상세한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문장의 구성과 표현이 난해함과 동시에 문장들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김종길, 『문』-의 경우에도 <보기>와 문제의 도움 없이는 이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는 너무 많은 대상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이러한 대상들이 가지는 의미를 전부 파악해야만 작품을 이해 할 수 있어 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을 것이다. 비교적 쉽게 느껴질 수 있는 현대 소설의 경우에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박태원, 『골목 안』-의 경우 인물에 대한 심리 묘사보단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작품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해당 작품이 가진 창작 의도와 속뜻을 알기 어렵다. 주로 대화를 통해 전개하는 작품의 경우, 대화 내용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작품의 전개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들기에 간단히 여길 만한 작품은 아니다. 나아가 작품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 또한 작품 이해에 걸림돌이 된다. 추가적으로 서술자의 시선이 주기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작품의 자체의 흐름을 잡기 쉽지 않다.

이런 스타일의 작품들은 기존에 출제되던 작품과는 사뭇 다른 결이 느껴진다. 당장 작년 시험만 하더라도 -조위한, 「최적전」-의 경우 전형적인 서사를 가진 고전 소설이었으며, -최명희, 「쓰러지는 빛」-의 경우 인물의 심리와 정서를 확인하기 비교적 간편했으며 상징물은 명확히 드러났고 상징물이 가지는 상징이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또한 -김훈, 「검재의 빛」-의 경우 필자의 시선을 필두로 보고 느낀 것들을 일기처럼 담백하게 서술하여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창작 의도가 비교적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다. 그러나 당해 시험의 경우 많은 것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내포하는 의미가 복잡하여 이해에 큰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기존보다 많은 논리적 판단을 요하는 선지들과 선지 글자 수의 변화

기존보다 많은 논리적 판단을 요하는 선지들의 존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기존 시험의 경우 문학에서는 단순한 사실들의 관계를 물어보거나 그 사실들이 가진 의미를 물어본다면 당해 시험에서는 그 사실들의 내용이 좀 더 복잡하고 사실들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게 생각 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에 실시한 시험의 경우 논리적으로 선지를 해석하여 여러 문장으로 나뉘었을 때 3~4문장의 분량으로 정리가 됐었지만 30번 문제에 해당하는 선지들을 살펴보자.

앞서 7쪽의 [㉕ 은유와 상징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명확한 인과관계와 관계성들] 파트에서 살펴 본 것처럼 30번의 ①번 선지는 6개의 문장으로 나뉘 판단해야 그것을 완벽히 분석 할 수 있었다. 29번 문제의 정답인 ④번을 분석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④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했는가?(O / X)
2.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했는가?(O / X)
3. [B]에서 인물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했는가?(O / X)
4. [B]에서 인물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 이유는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가?(O / X)
5.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했으며,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했는가?(O / X)

이처럼 분절적 판단과 종합 판단에 사용되는 문장은 총 5개이다. 판단에 필요한 문장의 수가 늘어난다면 사고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과 같으므로 선지 하나하나에 소모되는 시간 또한 길었을 것이다.

선지의 글자 수의 변화는 기존 시험과 당해 시험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공통 영역의 경우 2023학년도에서는 세 줄이 넘는 선지를 가진 문제는 4문제였다. 그러나 당해 시험인 2024학년도 시험의 경우 세 줄이 넘는 선지를 가진 문제는 그의 두 배인 8문제였다. 여러 문제 중, 읽을 것이 많은 문제의 경우 부담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3학년도의 경우 선지의 글자 수는 8006자였으며, 당해 시험의 경우 선지의 글자 수는 7768자였다. 전반적인 선지 글자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이런 결과가 보여주는 의미는 높은 밀도를 가진 선지의 잦은 등장과 짧지만 많은 판단을 요하는 선지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판단할 거리가 많은 선지들의 등장과 전반적 글자 수 감소가 뜻하는 바는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더욱 높은 수준의 사고능력을 요한다는 점이다.

5. 약간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몇몇 문제들

당해 수능에서 눈여겨 볼 몇 가지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의 특징은 기존에 출제되던 시험들에서 자주 출제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주로 출제 될 유형의 문제들이다. 대표적으로 6번 문제와 16번 문제가 있다.

6번 문제의 경우 강화/약화 유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란 특정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두 관점(입장)의 편에 번갈아 서서 판단하는 문제이다. 지문에 제시된 『공직선거법』이란 특정 사실과 관련된 사안을 상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두 입장을 이해하고, 각각의 입장에 서서 사건을 바라보는 능력이 중요하다. 현실에서도 하나의 사실에 대해 여러 입장과 관점이 존재 할 수 있기에 충분히 출제 될 수 있는 문제다.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작업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능력 중 하나이며 자신의 관점이 비판받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비판 받을 수 있는지, 자신의 관점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런 사회적 상황과 사회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 될 수 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문제의 정·오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아래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째 해당 사안 자체는 물론 그것과 관련된 내용·맥락 파악 능력

둘 째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신의 명확한 입장

셋 째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판단 능력

넷 째 자신의 입장이 비판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는 능력과 자신의 논리가 약화될 수 있는 약점을 파악하는 능력

다섯 째 자신의 입장이 비판받을 때와 자신의 논리를 약화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위와 같은 능력은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함은 물론 삶을 살아감에 있어 중요하다. 앞으로의 시험에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 될 가능성이 높기에 현 사안을 분석함에 그치지 않고 그것에 관련된 정당한 입장과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16번 문제의 경우 기존에 출제되던 유형의 문제와 비슷하지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부담감이 좀 더 늘어난 느낌이며, 앞으로 이러한 관점 비교 문제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출제되던 문제의 경우 살펴봐야 하는 관점 자체가 단순하거나 정보의 양이 비교적 적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해당 문제의 경우 본문에 등장한 사상가들의 입장을 완벽히 이해함은 물론 중심 소재인 『노자』에 대한 이해, 유학에 대한 이해, 해당 사상가들이 살아가던 시대에 대한 이해, 지문과 <보기>에 대한 ‘주석자’개념에 대한 이해,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 왕부지에 대한 이해 등등을 고려하여 풀어야 한다. 즉, 이해해야 할 관점의 수 자체가 늘어난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의 경우 지문과 <보기>를 완벽히 이해하지 않으면 명쾌히 풀 수 없기에 사고·인지 부담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지에서 왕부지의 입장에 근거해 (가), (나)지문에 제시된 사상가들의 입장을 반박/옹호하기에 논리적 관계 및 선후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해 모의고사와 수능 기조를 통해 후년을 위한 대비 전략>

당해 모의고사와 수능 기조를 통해 후년을 위한 대비 전략의 중심엔 [능동적 사고와 논리적 분석·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지문만 잘 읽으면 풀리는 문제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즉, 지문이 스스로 떠먹여주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대학수학능력평가라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길렸으면 하는 소양 몇 가지가 있다.

첫 째. 문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지 과정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자 실마리이기 때문이다. 사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 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출제해야 시험의 본질을 잘 지키는지와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문제의 속뜻을 이해하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당해 시험 20번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는 어떤 것을 물어보고 있는지, 각각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출제자는 어떤 능력을 측정하고 싶어 하는지, 문제에서 말하는 ‘설명’이란 무엇인지, 문제에서 말하는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에 대한 설명’이란 무엇인지와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고민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정형화된 풀이 구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일종의 ‘행동 강령’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이런 것은 아주 명확히 존재하며 필자는 이런 것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 준 뒤, 40일 만에 8등급에서 한 문제 차이로 4등급을 받은 학생이 존재한다(물론 이 학생은 놀라운 성적 향상을 겪은 다음 죽어도 복습하지 않은 자신에게 큰 후회를 했지만...).

둘 째. 하나의 문장에 담긴 논리적 연결과 관계

하나의 문장이더라도 여러 논리적 연결과 관계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존재한다. 가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문장을 하나 꼽자면, 16번 문제의 선지들이라 할 수 있다. 그중 ㉣번을 보자.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의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본 것을 비판하겠군.”

간단히 살펴보았을 때, 논리적 연결을 나타내는 표현 세 가지를 볼 수 있다. “기준으로”의 ‘~으로’와 “이해하면”의 ‘면’, 그리고 “보았으므로”의 ‘~므로’를 꼽을 수 있다. 세 표현 다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A로 B하면], [A하면 B한다.], [A했으므로 B한다.]로 일반화 할 수 있고 이 표현들은 모두 ‘통합’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하나의 문장을 여러 문장으로 쪼갤 수 있다.

- ㉠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했다.(O / X)
 - ㉡ 왕부지는 위의 관점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 보았다.(O / X)
 - ㉢ (나)의 오징은 유학의 인의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 한 것으로 보았다.(O / X)
 - ㉣ 왕부지는 이러한 견해(㉢)를 가졌으므로 (나)의 오징이 가진 생각(㉢)을 비판했다.(O / X)
- 위와 같이 하나의 문장을 네 개의 문장으로 쪼갤 수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은 분석 판단이라 부르고, ㉣은 위의 분석 판단을 하나로 모은 종합 판단이라고 부른다.

셋 째. 관조적으로 글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분석 할 수 있는 능력

글의 의도를 파악하고 숨은 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조적으로 읽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글을 읽으며 과대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독을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하는 말이다. 글을 관조적으로 읽어 오독을 방지하는 것은 개념, 용어, 표현 등을 명확히 정의내리고 이해하는 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 먼저 글을 관조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야 말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해 시험 8번의 ④번 선지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보고 ‘데이터란 무엇인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상치란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이상치가 존재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에 답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글을 관조적으로 읽고 글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그 뒤에 개념, 용어, 표현 등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 내려야 수월한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는 뜻에 흘러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으니 이상치는 없겠지? 이상치는 말 그대로 이상(異狀)하다는 뜻이니까~’하고 넘어갔을 수 있다. 보통 아직 학습이 부족하거나 공부를 깊게 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넷 째. 글에 담긴 맥락과 의도를 이해 할 수 있는 능력

글에 담긴 맥락과 의도를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은 수능이 가장 본질적으로 원하는 능력 중 하나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을 넘어 글의 맥락을 파악하고 그 속에 담긴 의도를 이해해야만 대학에 진학해서 원활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 영역은 물론 수학, 영어, 탐구 과목에서 자료 분석 능력을 테스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찌되었건, 글에 담긴 맥락과 의도를 파악 할 수 있다면 글을 온전히 이해 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함축하기도 하고 글을 읽으며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상하며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험에서 첫 문제로 독서론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이에 있다.

글은 모든 정보와 내용을 서술 해 줄 순 없다. 어느 정도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서술을 생략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존재 할 수 있으며, 글의 숨은 뜻을 이해하여 추가적인 정보 습득하길 원하는 저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전적으로 글에 담긴 맥락과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

다섯 째. 어떤 개념이나 용어 혹은 표현을 정의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능력

보통 독서 영역은 물론 선지에서 정보를 제시하거나 개념을 정의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절 문장을 통해 개념과 용어에 해당하는 체언을 수식하는 방법과 단순히 [A는 B이다.]식의 정의 서술, 나아가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서술하고 후에 서술될 문장을 '~하기 때문이다.'식으로 이유와 근거를 들어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서술은 보편적이며 필수적인 방식이므로 수능을 비롯한 모든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실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방법이 존재함과, 사용 양상에 대해 잘 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제시된 정보를 논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과연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참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 될 수 있는지 논리적 범주를 판단할 수 있어야 글을 제대로 읽고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14번 문제의 ②번 선지로 예를 들어 이해해보자. “㉠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 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은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의 진의를 밝혀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란 문장을 보고 ㉠과 ㉡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 지었는지, 유학과 노자 사상을 연관 지은 양상은 어떠한지,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은 어떻게 확인되는지,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이란 무엇인지,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의 진의란 무엇인지, 어떤 오해를 바로 잡으려는 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이에 대해 답을 정의내리고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선지가 적절한지 아닌 지 알 수 있다.

옳지 않은 선지의 경우 이런 방식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은 선지를 만드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자면 두 가지로 좁힐 수 있다. 반대되는 내용을 넣거나 혹은 아예 글과는 무관한 내용을 넣는 것이다. 다른 선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 질문을 만들고 이에 답해 보면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 그 이유는 그냥 그 질문 자체가 틀려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 째. 옳은 선지는 글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글의 본질을 꿰뚫고 옳은 선지를 보면 그 본질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수능이란 시험이 가진 한계 때문이다. ‘글’을 읽고 그것을 ‘파악’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옳은 선지를 고르라는 문제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선지든, 옳은 말을 하는 선지는 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도, 본질로 구성 될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고력 시험’인 수능에서 암기적 요소나 지엽적 요소를 선지에 넣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시험지 공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것일뿐더러, 전혀 수능이란 시험과 어울리지 않는다. 출제자들은 틀린 논리든 옳은 논리든, 최대한 글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엮어 수험생의 수준을 가늠하기 마련이다. 한번 역대 기출 문제의 지문을 읽고, 1. 글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 2. 글이 만들어진 이유 3. 글의 핵심 내용과 본질 이 세 가지를 체크하고 옳은 선지로 이동해보면 된다. 적어도 위의 세 요소를 그대로 담아 논리적 가공을 통해 다른 말로 바꿔 표현했을 뿐이다.

<개인적인 소감>

저는 현장 응시를 하지 않아 모든 것을 알 순 없습니다. 그러나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생각했을 때, 꽤나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해 시험은 올해 모의고사나 작년 수능보다 살짝은 난해한, 읽고 생각 할 것들이 많은 시험이었을 겁니다.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 N수를 결심한 학생들 모두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전신전력 압도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은 단번에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 인생과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계속 수능판에 머물고 있으면 정신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칠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스스로를 좌절의 늪에 내모는 시간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해보면 나름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내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 꼼꼼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정말 추천 드립니다.

내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어 다사다난했고 복잡한 심정으로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내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고 따뜻한 겨울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흡연자분들은 절대 담배에 손을 대선 안 됩니다. 담배는 스트레스를 줄여주지 못할뿐더러 수능 날 담배 욕구 때문에 집중이 한번이라도 깨진다면 매우 괴롭습니다.

-오동나무 배상-